

국립광주박물관 '박장대소'

〈박물관에서 재밌게 놀자〉



국립광주박물관이 진행하는 '2016 박물관 봄 문화 축제'에서는 재즈공연·캘리그래픽 강좌·숲 해설 이야기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넓은 공간, 도심 속 숲으로 나들이를 나온 가족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국립광주박물관이 봄을 맞아 축제를 개최한다.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2016 박물관 봄 문화 축제'는 봄과 예술을 만끽할 수 있는 체험, 문화예술공연 등 다채롭게 꾸며진다.

19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의 체험학습실에서 '박물관 화원-그림문자(캘리그래피)'를 진행한다. 이날은 '전통화화 속 봄'을 주제로 옛 그림에 나온 꽃, 나비를 그려보는 시간이다.

20일은 오후 3~4시 '문화재 병인 탐방'(정원 30명)이 마련된다. 일반인들은 접근하기 힘든 보춘 처리실을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21일에는 양피해를 맞아 천연염료를 소재로 공예품을 창작하는 '박물관 규방-양모펠트'가 체험학습실에서 오후 2~5시까지 열린다. 또 오후 2시30분부터 박물관 인공 숲을 돌며 식물과 자연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박물관 숲 체험-박물관에 꽃피는 봄이 오면'(40명)이 진행된다.

22일 금요일에는 특집전 '고대모자, 고

19~25일 '2016 박물관 봄 문화 축제'

봄과 예술 만끽할 체험·문화예술공연 다채

어린이들이 물건 사고파는 프리마켓도

갈'을 주제로 한 '큐레이터와의 만남'(50명)을 개최한다. '고대모자, 고갈'전은 광주 신장동유적에서 1995년, 2009년 발굴조사 때 출토된 고갈 10점을 전시하고 있다. 이날 박영란 학예연구사와 함께 소장고를 돌아보며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는다.

주말인 23일과 24일은 풍성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23일 오후 1~5시에 열리는 '박장대소(博場大笑)' 이번 축제 하이라이트다. '박물관에서 재밌게 놀자' 의미인 '박장대소'는 어린이들이 직접 물건을 사고팔며 경제 관념을 배울 수 있는 프리마켓이다. 문화예술작가와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일반인들이 참여한다. 예술작가들은 공예작품을 판매하거나 선보이고, 체험부스를 운영한다. 일반인들은 집에서 안 쓰는 물건을 팔 수 있다.

다양한 볼거리도 진행된다. 오후 1시 대강당에서는 애니메이션 '뽀빠이' 구조대미션 : 동동이를 구하라'가 상영되고 오후 4시부터는 밴드 '재즈 피에스타'가 '동심을 노래하는 재즈' 공연이 열려 귀를 즐겁게 한다. 24일에도 오후 1시 대강당에서 애니메이션 'UP'을 상영하고 '가족뮤지컬-빨간 모자와 늑대'를 공연한다.

영화와 공연 관람은 무료이며 공연입장권은 교육관 현관에서 오후 2시30분부터 선착순 300명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축제는 25일 오후 4~6시 특별전 '세계유산 고인돌, 큰 돌로 무덤을 만든다' 개막식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7월31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전국 각지에서 출토된 간돌검, 간돌화살촉 등 유물 300여점을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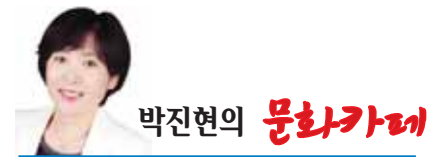
축제기간동안 행사 사진을 지정된 해시



빨간모자와 늑대

태그와 함께(#국립광주박물관 #박물관봄문화축제)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심사를 통해 상품(커피 교환권)을 증정한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박물관 홈페이지(gwangju.museum.go.kr)를 통해 각 프로그램별 참가신청을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다. 문의 062-570-702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예술가 중에 앤드류 와이어스(1917~2009)라는 미국 화가가 있다. 우리나라의 이중섭 화백이나 박수근 화백처럼 미국에선 20세기 회화사를 빛낸 국민화가로 추앙받는다. 뉴욕 현대미술관에 소장품인 '크리스티나의 세계'(Christina's World·1948년 작)는 그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다. 10여 년 전 뉴욕 미술관의 전시장에 내걸린 '크리스티나...'를 마주한 순간 목격한 돌 하나가 가슴에 얹힌 것 같은 기억이 있다.

유화를 주로 쓰는 동시대 작가들과 달리 템페라 기법(안료를 계란 노른자에 개어서 작업)을 즐겨 그

웃김이에 걸린 교복, 손때 묻은 교과서, 매일 밤 베고 자던 베개... 금요일에 돌아오기 위해 수학여행을 떠난 '주인'들의 빈 방은 겉으로 보기엔 평온해 보였다. 한 아이의 책상을 지키고 있는 달력은 2014년 4월에 멈춰져 있고 교복은 침대 위에 단정하게 놓여있다. 아마도 방 주인공이 수학 여행을 다녀온 다음 날 등교시간에 늦기 않기 위해 미리 '세팅'한 것이리라.

최근 기억 저편으로 사라진 아이들의 방이 다시 등장했다. 경기도 미술관이 세월호 희생자 추념전 일환으로 마련한 '사월의 동행전'(4월 16~6월26일)에서다.

아이들이 떠난 후

린 그의 작품들은 유희 특유의 광택은 없지만 차분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느낌이 인상적이다. 마치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품을 연상케 한다.

'크리스티나...'는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극사실의 고요한 그림이다. 소아마비로 두 다리가 불편한 고향 친구 크리스티나 울산을 모델로 그린 이 작품은 크리스티나가 들뜬 가로 질러 언덕 위의 집으로 힘겹게 올라가는 모습을 통해 인간의 원초적인 굴레를 특유의 서정적인 질감으로 표현한 수작이다.

한동안 잊고 있었던 앤드류 와이어스를 다시 떠올린 건 지난해 5월(사)4·16 가족협의회가 부산·광주·인천·제주 등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한 세월호 추모 기념 4·16 기억 프로젝트 '아이들의 방' 때문이었다. 사회적 망각에 저항하고 사회적 연대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규명을 바라는 의미를 담은 사진전이다.

하지만 아이들의 방의 주인은 여전히 없다. 그 사진을 본 순간 앤드류 와이어스의 '주인의 침대'(Master Bedroom·1965년 작)가 오버랩됐다. 방 한가운데 자리한 텅 빈 침대의 머리맡에 덩치 큰 개가 누워있는 그림이다. 외출한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기다리다 지쳐 잠든 모습인 듯 하다. 하지만 그림 속 개는 행복해 보인다. 저녁이 되면 '컴백후'한 주인이 방문을 열고 자신의 이름을 불러줄 것이므로.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로 아이들이 우리 곁을 떠난 지 벌써 2년이 됐다. 긴 시간 동안 과연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그저 참담하고 부끄러울 뿐이다. 아이들이 떠난 빈방의 손때 묻은 교과서와 굵은형, 교복이 눈앞에 자꾸만 어른거린다. 냉기만이 감도는 아이들의 방에 따뜻한 온기가 흐르게 될 날은 언제쯤일지...

〈편집부국장·문화선임기자〉

전남옥과미술관 '김경록 가구전'

16일~7월 7일 ... 나무 의자·책상 등 세련된 선의 미학

도립 전남옥과미술관 (관장 조암)이 개관 20주년기념 기획전으로 '김경록 가구전'을 7월7일까지 개최한다. 오는 16일 오후 3시에 전시오프닝이 있다.

산업디자인을 전공한 김경록 작가는 현대와 조화를 이루는 전통 목재 가구 디자인을 선보인다. 김씨는 신영훈 한옥문화원에서 전통건축을,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26호 심음식 선생에게 전통장호법식을 사사받은 독특한 이력을 지녔다. 전통을 계승한 현대적 디자인 가구를 선보이는 이번 전시에서 눈길을 끄는 작품은 나무로 만든 의자와 책상이다. 의자와 책상은 일

식 생활을 하던 서양 문화다. 반대로 좌식 생활 양식이었던 한국은 현대와 과정에서 임식을 받아들였다. 작가가 보여주는 의자·책상 디자인은 곡선이 살아 있는 선의 미학을 보여준다. 매끈한 책상다리는 정갈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이다.

특히 원목 자체 결을 최대한 살린 자연미가 특징이다. 오디오를 결합한 테이블은 아날로그 감성을 지니면서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작가 마음이 담겼다.

김씨는 조선대 미술대학 산업디자인과를 졸업하고 지난 2월 서울한옥박물관에



'오디오 책상'

서 '전통장호'를 전시했다. 현재 전통장호·가구 스튜디오 '달든'을 운영하고 있

다. 문의 061-363-7278.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전남대 '지역어사업단' 15일 안대회 교수 초청강연

전남대학교 'BK21 지역어기반사업단'(단장 신해진·국어국문학과 교수)이 15일(오후 2시) 인문대학 학술회의실(인문대 1호관 113호)에서 제13회 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강연회의 초청강사는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안대회 교수이다. 안 교수는 이날 '18세기 음식문화의 시각'이라는 주제로 맛에 관한 담론이 본격화된 18세기 식문화의 변화를 이야기할 예정이다. 또한 금육과 절제의 분위기

에서 벗어나 음식 자체와 맛을 즐기는 음미(吟味)의 문화가 출현한 18세기 식문화의 변화 과정도 조명한다.

한편 안 교수는 현재 성균관대 한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조선 후기 산문을 발굴해 대중적인 필치로 풀어내는 작업을 해왔으며 '정조의 비밀편지', '벽광나치오', '전기수 아저씨', '북상기' 등 다수의 번역서와 공저를 냈다. 문의 062-530-0230.

/박성현기자skypark@kwangju.co.kr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도시개발은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법원경매, 질권대출 & 부동산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NPL 관련업무를 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중개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매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NPL(근저당권)투자는 ?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간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양도소득세나 이자소득세가 부담이 되시는 분
- * 상가,공장,토지,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 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유한회사 제이앤와이도시개발 ☎ 062-383-4987

사업자등록번호 435-87-00319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2461

NPL 물건

NO	사건번호	물건
1	광주 2015타경 11371	모델
2	광주 2015타경 17416	근린상가
3	순천 2015타경 14423	근린생활주택
4	목포 2015타경 1551	오피스텔(주거)
5	목포 2015타경 8910[1][2]	단독주택
6	순천 2014타경 9356	근린상가
7	순천 2015타경 14058	근린상가
8	순천 2015타경 15976	근린생활주택
9	목포 2015타경 10570 [1][2][3]	근린상가
10	목포 2015타경 9821	근린상가
11	목포 2015타경 12278	아파트

믿음이가는 대부 금융사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대부

등록번호 2016-광주서구-0021 서구청 경제과 360-7162

- 부동산 담보대출 전문 (후 순위 추가대출 가능)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채권 매입
- 경매 취하지금 대출

대출금리 : 연 27.9% 이내 (추가비용 없음)

- 과도한 빛, 고통의 시작입니다 -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대부

☎ 062-382-4987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79번길